



ACC는 오월문화주간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오월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광주일보 자료>

오월 그날의 상흔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다

'ACC 오월문화주간' 5월18~27일...민주·인권·평화 예술로 승화
'오월어머니의 노래'·'시간을 칠하는 사람들'·'대동춤Ⅲ' 등 풍성

'오월어머니의 노래',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대동춤Ⅲ', '오월이야기퍼즐',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등...
80년 오월 그날의 상흔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일원에서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ACC 오월문화주간'에 펼쳐지는 문화행사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오월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와 공연 등으로 짜여져 있다.
먼저 5월 18일은 '오월어머니의 노래'와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공연이 오월문화주간 테이프를 끊는다. 특히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오월어머니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열다섯 어머니들의 가슴속 아픈 이야기를 노래 등으로 풀어냈다. 올해는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씨와 조선판스타에서 우승한 국악인 김산옥씨가 참여해 오월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5·18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ACC의 대표 콘텐츠다. 작품은 옛 전남도청 철거라는 배경을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한 노인의 기억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지난 2018년 ACC 창작스토리 콘텐츠개발 프로젝트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토리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으며 극은 옛 전남도청 건물을 모티브로 건물과 함께 했던 한 주인공의 이야기다. 도청 건물 철장이었던 어느 노인의 기억과 비극의 역사를 매개로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인 주제의식을 선사한다.
화평과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전통예술공연 대동춤Ⅲ'은 문화예술인과 신흥 예술인이 참여해 신

명한 '대동'을 구현한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오월의 광주를 기록하다'(선작순)는 오는 16일부터 ACC 방문자서비스센터에서 일화용카메라를 받은 후 진행된다. 2023년 5월의 광주를 참여자가 직접 촬영하고 반납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ACC 콘텐츠로 기록 보관대 전시와 온라인 등으로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후진행된다.
이밖에 정주 100주년 특별전인 '나의 음악, 나의 조국'을 비롯해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오월이야기 퍼즐', 'ACC민주·인권·평화 캐릭터공모전', '2023 ACC 콘텐츠' 경기, 해매기 전시 연계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이강현 ACC 전당장은 "오월문화주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는 80년 오월의 아픔과 슬픔을 기록의 차원을 넘어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며 "민주·인권·평화로 상징되는 오월의 정신이 광주를 넘어 전국, 세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사 체험로드 '두흠길'을 걷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서서평·현덕신 선생 등 발자취 조명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은 지난해 광주여성사 체험로드 '두흠길'을 개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고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를 걷는 광주여성 두흠길은 서서평과 호남 최초의 여의사인 현덕신 등 두흠길 속 여성인물과 역사적 사실들을 만나는 기회다.
운영 코스는 근대여성역사교육과 여성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흠길', 3월 10일 만세운동에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알 수 있는 '백단식'길 2코스로 구성돼 있다. 코스별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매일 오전 10시·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된다. 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양림동 독립서점

'리브앤프리'와 함께 '두흠길' 속 여성인물과 역사적 장소가 담겨있는 기념엽서를 발급했다.
기념엽서에는 서서평 선교사, 광주 최초의 여성사이자 여성운동가인 현덕신 선생, 광주여성독립운동가인 김합라·김마리아 자매, 이일학교와 수피아학교의 그림이 담겨 있다.
기념엽서는 리브앤프리를 비롯해 지웃의자리, 책과생활, 사이시웃, 묘한서점, 소년서, 네모, 동네책방숨 7곳에서 오는 21일부터 무료로 배부한다.
두흠길 투어, 엽서 수령 문의 062-670-056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광주'가 KIA타이거즈를 응원합니다

배우 김수·효은·최지혜 등 참여
23일 경기서 시구·애국가 제창

뮤지컬 '광주'가 '문화스포츠 행사'로 광주 시민과 야구 팬을 만난다. 특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광주 출신의 배우들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첫 무대를 갖게 돼 눈길을 끈다.
오는 23일 오후 2시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는 기아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 경기에서 '광주' 출연 배우들이 시구를 비롯해 애국가 제창 등 축하 공연에 나서게 된다.
양상원 원사를 모티브로 한 윤이건 역의 김찬호는 시구자로 나서 눈길을 끈다. KIA타이거즈 팬이기도 한 김찬호는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시구를 하게 돼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며 "무엇보다 뮤지컬 '광주' 팀과 함께 축하 무대까지 가질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애국가 제창은 황사음악사를 운영하는 정화인 역의 김수, 아학교사 문수경 역의 효은·최지혜 배우가 한다. 광주 출신 김수는 "고향의 시민들 앞에서 애국가를 부른



뮤지컬 '광주' 출연진은 23일 KIA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시구와 애국가 제창 등을 펼친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다는 생각을 하니 벅찬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김찬호, 김수, 효은·최지혜와 지난해 시즌 참여한 신은호를 비롯해 이번 시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구자연, 신승현, 조배근, 황수빈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특별무대에서는 광주의 평화로운 본을 기다리는 도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뮤지컬 넘버 '그날이 올 때까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

콘텐츠와 스포츠가 만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올해 네 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광주'가 전국으로 파급력이 확대되는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광주>는 오는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모두 9회에 걸쳐 무대에 올려진다. 티켓은 인터파크를 예매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지아 소설가, 오영수문학상 선정

수상작 단편 '말의 온도'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사진) 소설가가 제31회 오영수문학상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단편 '말의 온도'이며 상금은 3000만원.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수상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는 구호서 소설가, 이재복 문학평론가, 방형석 소설가 등이 맡았다.
수상작 '말의 온도'는 계간 문예지 '창작과비평' 2022년 봄호에 발표된 단편소설이다.
심사위원들은 "작가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 그녀의 진실한 삶의 내면, 즉 '말의 온도'를 들춰내고 있다. 어머니의 사투리는 단순한 말의 색을 넘어 거칠거칠거니와 꾸밈지 않은 그녀의 진실한 내면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그녀의 소설이 탐구해온 이념 이전의 인간 본래 모습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작가의 이러한 면모를 읽어냈고, 그것이 한국 문

단의 귀중한 자산임을 모두 공감했다"고 평했다.
정지아 작가는 "이번 소설의 또 다른 공헌자는 어머니이다. 소설은 삶의 희로애락을 겪은 시공간이 발효돼 완성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가만히 살아가는 이들의 살아있는 말에 귀 기울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례 출신 정지아 작가는 '빨치산의 딸'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고요나무'가 당선됐다.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심훈문학대상, 김정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조선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울산 남구 문화원 야외공연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정적 언어로 쓰여진 존재와 비존재

담양 출신 송태웅 시인 '배고픔이 고양이를 울고 갔다' 펴내

그의 시를 읽으면 자리산과 화엄사, 천은사, 노고단 자락의 풍경이 펼쳐진다. 실제 시인은 구례의 자리산 자락에서 살면서 시심을 길러 올리고 있다. 참선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시인이 자리산 배경 때문일 것이다.
송태웅 시인. 담양에서 태어나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계간 '함께 가는 문학'으로 등단해 시집 '바람으로 그린 벽화', '파랑 또는 파란', '새로운 인생' 등을 펴냈다.
송태웅 시인이 네 번째 시집 '배고픔이 고양이를 울고 갔다' (문학활동)를 펴냈다.
그의 시에는 실존의식, 존재와 비존재 등의 사유가 서정적 언어로 감무리데 있다. 깊이가 있으면 현학적이지만 울림으로 다가와 읽고 난 뒤 여운

을 준다.
한때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는 이제 '발벌이'를 벗어나 자리산 천은사와 화엄사 사이에 있는 마을에서 노고단을 올라다보며 시를 쓴다. 시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적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다.
"바람 소리가 대숲을/ 쓸고 갔고/ 배고픔이 고양이를 울고 갔다/ 추위가 보일리를 건드리고 갔고/ 나는 한사코 당신을 울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울면/ 당신은 전지철에 매달려 감전당한/ 공기처럼/ 위태로워질 것이기에"
표제시 '배고픔이 고양이를 울고 갔다'는 어떤 사고의 현장을 연상하게 한다. 일상에서 사고는 발작처럼 예고없이 다가오기에 특정할 수는 없다. 사고 이후에는 죽음 또는 그 이상의 상해가 뒤따른다. 희



생자는 사람일 수도 고양일 수도 다른 생명일 수도 있다.
화자가 상징하는 '울고 갔다'는 우리 삶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와 상흔의 아픔을 소환한다. "나는 한사코 당신을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역설적인 상황으로, 감내할 수 없는 슬픔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규성 시인은 추천사에서 "송태웅은 부박한 시단의 대세에 편승하거나 상투성에 매몰되지 않고 나름의 독자적 시풍을 추구한다"며 "서정시가 주조를 이루지만 고루하거나 도식화되지 않고, 경험을 통해 체화된 사유와 진솔하고도 곡진한 감성이 어울려 은밀한 감동을 선물한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진오 시인, 처녀시집 '빛과 색으로 말하다' 펴내

신안문화원장을 역임한 김진오 시인이 그의 처녀시집 '빛과 색으로 말하다'를 도서출판 글빛에서 펴냈다.
김진오 시인은 장산면 출신으로 장산면장을 지냈으며, 지방무형문화재 장산도 들 노래 보존회장을 등을 역임했다.
'빛과 색으로 그린 그리움과 희망을 노래한 그의 시에는 고향 장산도에 대한 애잔함과 그리움이 묻어 있다.
그는 시인의 말에서 "지난 2017년 중조 부님과 조부님 부자의 한시를 국역해 유교 시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조부님의 시향을 빌려 시집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게 돼 행복하다"고 했다.
"토담집은 금빛 반달을 머리에 이고/ 흙에서 살자고 언제나 소곤소곤/ 돌담길 따라 햇살 가슴에 품은/ 아낙네들 마음에는

행복꽃 가득한 꽃// 앞내도 뒷내도 바닷물 드나드는 갯벌/남정내를 트실한 팔뚝으로 원뿔을 막아/수수백간의 공간을 만들었다."('비소리- 어머니의 품' 중에서)
비소리는 시인의 고향이다. 새가 집으로 날아오는 새집 형국이라 비소(飛巢)라고 했듯이 시인은 고향을 어머니 품속 같은 보금자리로 표현했다. 빛과 색이 있는 시인의 마음이 공감각적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